

일관성과 정확성 그리고 정신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다. 인스티튜트오브골프가 누리는 대단한 이점 한 가지는 국가 차원에서 골프 인재 육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교육과 관광, 행사와 경제개발 등을 추진하는 정부 기관에서 우리 인스티튜트오브골프가 뉴질랜드를 골퍼 육성의 성공 가도로 이끌어줄 이상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걸 인식했다." 디슨은 말했다. 인스티튜트오브골프의 프로그램은 뉴질랜드의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올해 그들은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로 방문해서 그곳의 주니어 골퍼들을 상대로 무료 실력 평가 행사를 했다. 도시별로 한 명씩 선정해 30일간의 집중 프로그램으로 전문적인 레슨을 받게 하는 한편 영어를 배우고 현지의 라이프스타일도 경험할 수 있는 뉴질랜드 골프 장학금을 지원했다.

"오클랜드관광경제개발청(ATEED)과 뉴질랜드 교육부, 뉴질랜드 관광청 등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디슨은 말했다. "그들의 비전과 헌신 그리고 지원이 없었다면 중국의 골프 인구에게 기회를 제공하지는 이번 프로젝트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는 재능 있는 주니어를 발탁해 그들에게 우리의 포괄적인 코칭 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다시 한 번 장래의 세계 1위를 배출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머지않아 미래의 슈퍼스타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 태국 국제예비골프아카데미

태국의 방콕에서도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볼 수 있다. 국제예비골프아카데미(IPGA)는 아메리칸스쿨오브방콕(ASB) 산하이며, 현재 5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등록을 마쳤다.

"ASB는 태국 최고의 골프 스쿨 프로그램이며, 범위를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더라도 역시 최고일 거라고 자부한다." IPGA의 커트 그리브(Kurt Greve) 교장은 PGA 마스터 프로다. "우리 주니어 골퍼들은 PGA 프로 골퍼들의 지도를 받으며, 우리가 1부 리그 골프 장학생으로 미국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프로 무대로 진출할 주니어를 위한 최고의 프로그램이라는 명성이 이미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IPGA는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프로그



램을 제공한다. 골프 레슨과 더불어 ASB에 입학해서 학업을 병행할 수도 있고, 골프만 배우고 싶다면 그것도 가능하다. 더욱 원대한 목표를 가진 주니어 골퍼들을 위해서는 LPGA와 PGA투어로의 진로 상담이 포함된 엘리트 골프 프로그램까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각자의 목표와 별개로 IPGA는 학생의 기본적인 토대에 관심을 기울인다. "어려서부터 프로와 공인 골프 코치로부터 기분을 배우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브는 말했다. "우리는 어린 골퍼들이 지쳐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다른 종류의 스포츠를 병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재미있게 놀면서 손과 눈의 협응 능력도 개발할 수 있고 골프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체력 단련과 체력 강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절제된 동작을 구사하는 법도 익히게 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점은 각각의 주니어에게 맞춘 최선의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려면 학생의 가족이 우리 PGA 공인 코치들을 완전히 신뢰하고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다."

### 싱가포르 애디드스포츠

스포츠를 통해 미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은 또 있다. 싱가포르 애디드스포츠(Added Sport)는 설립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골프와 테니스, 스쿼시, 축구 그

리고 수영에서 소질이 있는 선수들에게 매니지먼트와 진로 상담을 제공하면서 확실한 명성을 구축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설립자인 아크사이 말리왈(Akshay Malwal)은 본인이 골프 장학생으로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체육 특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 수밖에 없다. 그는 졸업 후에 투자은행에서 1년 정도 근무했지만, 스포츠에 대한 사랑을 접을 수 없어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게 됐다고 한다.

"나는 골프 장학생으로 버클리에 진학했고, 쌍둥이 여동생인 아디티는 스탠퍼드 여자 스쿼시 팀에서 활동하면서 주장까지 했다." 그는 인도 태생이지만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설립했다. "금융계에서 잠시 근무하면서 우리 둘 다 꿈을 좇아 스포츠 부문에서 일하고 싶다는 열망이 더 강해졌다." 애디드스포츠를 설립하면서 사업 4년 차를 맞은 쌍둥이 남매의 미래는 유망해 보인다. "우리는 미국으로 스포츠 유학을 가려는 아시아 학생들에게 진로 상담을 해주고 있다." 말리왈은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애디드스포츠의 접근법은 훈련과 토너먼트 참가, 미국 대학 견학 그리고 실질적인 입학 지원 등을 포괄한 통합적인 성격이 특징이다. 그리고 가능한 경우 장학금 신청도 도와준다.

"지금까지 40명이 넘는 학생을 미국 대학에 진학시켰고, 올해의 경우 65명의 학생 중에 30여 명이 입학 허가서를 받았다. 우리 스스로 상당한 성장세라고 평가한다." 말리왈은 말했다.

말리왈의 강점은 자신은 물론 쌍둥이 여동생이 이미 그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는 데서 나온다. 말리왈은 싱가포르에서 고객을 만나고 응대하지만, 여동생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코치들과 미국 대학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말리왈은 크게 두 부류의 고객에게 초점을 맞춘다. "한 그룹은 대학 골퍼를 디딤돌 삼아 프로 무대 진출을 꾀하는 골퍼들이다." 젊은 사업가는 이렇게 설명했다. "또 다른 그룹은 학업 성적으로는 정상급 대학에 진학할 수 없기 때문에 스포츠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학생들이다."

어느 쪽이든 애디드스포츠는 두 가지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울어름에도 고객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토너먼트에 출전하도록 돕는 한편, 지원을 고려하는 대학을 방문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조만간 아시아 지역에서 주니어 골프 대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미국 대학의 코치들을 초청해서 유망한 골퍼들의 플레이를 직접 보여주려는 목적이다.

말리왈은 아시아 시장이 이런 자신의 계획을 추진하기에 이미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프로 선수 출신들과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는 인력을 두루 갖춘 그는 현재 싱가포르와 인도, 필리핀 등지에서 주니어들의 목표 달성을 돕고 있으며, 홍콩과 중국으로도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애디드스포츠의 정체성을 기본적으로 홍보 마케팅 회사로 보는데 우리는 고객이 학생들이다." 말리왈은 말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대학을 홍보함으로써 그들이 우리의 포괄적인 프로그램과 계속 확장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길을 찾도록 돕고 있다."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든, 전도유망한 골퍼가 체육 특기생으로 미국 최고의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조금 쉬워진 건 분명한 사실이다. ①